

제주사회복지신문

>2017년 8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18호

기적의 편지로 115명 소원 이뤄지다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손편지 사연 받아 소원 실현
JDC, '기적의 편지' 추진 사업비 지원

“엄마가 암에 걸려 언제까지 저희와 함께 살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빠, 엄마, 동생과 같이 여행을 가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가지각색의 사연이 적힌 손편지가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기적의 편지 담당자 앞으로 도착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JDC)가 5천만 원을 후원하고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주관한 2017년 '기적의 편지' 사업이 진행됐다.

'기적의 편지'사업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생 등 아이들이 개인적 바람을 담은 '손편

지'를 보내오면 이를 심사해 소원을 이뤄주는 방식으로 올해로 3년째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난 5월1일부터 6월23일까지 진행된 접수기간 동안 총 219통 손편지가 접수됐다. 편지에는 개인적 바람을 담은 소원, 사랑하는 가족과 추억 만들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물품 요청 등 저마다 꿈과 희망을 담은 사연이 빼곡히 적혀있었다.

5명의 심사위원이 소원 내용의 진실성, 개인의 성장 및 가족 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효과성, 지원물품 용도의 타당성, 금액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그중 115통 소원 사연을 이루어 줬다.

소원 내용을 보면 전자제품(컴퓨터, 카메라, 게임기 등), 스포츠레저용품(축구화, 농구공 등), 도서·문구·완구, 의류잡화, 약기, 의료용품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기타 물품으로 여행, 학원수강권 등이 있었다.

기적을 이룬 115통의 소원 물품들은 이달 11일까지 개별 전달될 예정이다.

이광희 JDC 이사장은 “기적의 편지 사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작은 기적을 지원해 줄 수 있어 기쁘다”며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희망의 나라를 펼칠 수 있도록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 지난날 1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왼쪽 세번째)는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 왼쪽 네번째)에 기적의 편지 사업비를 지원했다.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 공모

오는 9월 9일,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시상

제주도는 이달 22일까지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을 공모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현장에서 도민

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타의 모범이 되고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업무담당 공무원을 발굴·포상하는 사업이다.

선발 대상은 제주도와

행정시(읍·면·동 포함) 소속 5급 이하의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직은 5년 이상, 기타 직은 1년 6개월 이상의 근무기간을 조건으로 한다.

선발 절차는 추천자에 대한 주요 공적내용을 제주도 홈페이지에 일정기

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 후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 5명(대상 1, 본상 2, 장려상 2)을 선발한다.

시상식은 오는 9월 9일, 제주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면소개

- 종합 2면
“캄보디아 고향에 다녀올게요”
- 특집 4면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
- 오피니언 6면
시론-칼럼기고
- 기획 7면
사설탐방-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VAN GOGH INSIDE

‘8월의 문화복지서비스’ 안내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도내 전시회 및 공연 등의 관람지원을 통해 사회복지현장 근무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 달의 문화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혜택 : 『반 고흐 인사이드 : 빛과 음악의 축제』 관람료 할인 (중문관광단지 제주부영호텔&리조트)
- 대상 :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근무자 또는 근무자와 동행하는 시설 이용(생활인), 일반 동행인
- 할인가 이용방법 :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근무자 1인의 재직증명서를 매표소에 제시
- 할인가 및 적용기간 : 도민할인 + 추가할인 (2017. 8. 31(목)까지)

문의 : T.070-4726-8823, 흥나나 팀장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 통과

장기요양보험 활성화 위해 시설장 자격 부여

지난달 21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상임위 제1차 회의에서 김용범 의원(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을 제안, 가결했다.

건의안은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직원 자격기준’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관련 직종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김용범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상 방문간호의 재가급여업무를 하는 장기요양 요원으로서 간호사와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된 데 따른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며 “간호조무사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고 제주 내 간호 인력난이 심화되는 현실과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의 활성화를 고려할 때 간호조무사에게도 시설장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제주도지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 지난달 21일, 제3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무더위 속 노숙인 특별보호 추진

제주시, 취약지역 순찰강화·응급구호 체계 마련

제주시는 혹서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14일 밝혔다.

지난달 열흘이 넘게 폭염 주의보가 지속되는 등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오는 9월까지 노숙인 집중보호기간으로 정해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노숙인 밀집지역(산지천, 신산공원)에 노숙인 보호를 위해 동부경찰서, 제주소방서, 동주민센터 등 각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야간 10시까지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사고예방 및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결핵검사, 구강검사, 혈당검사 등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열사병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노숙인 지도·보호활동을 통해 시설입소 42명, 귀가조치 65명, 응급치료 99명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숙인 시설과 유관기관 등을 통해 혹서기 노숙인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혹서기 안전사고 제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고향에 다녀올게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구성 프로그램

제주도는 KCTV제주방송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구성 프로그램 ‘나눔’의 일환으로 제주도내 캄보디아 출

신 다문화가정 4가족 13명이 고향방문에 나섰다<사진>. 이 프로그램은 도내 모

범 다문화가정을 선발해 고향방문 기회를 제공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성공적 정착사례를 전파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6가족과 4가족이 베트남을 방문했으며, 올해에는 캄보디아 출신 다문화가정의 제주생활상과 프놈펜 및 캄뽕에서 고향방문 모습을 밀착 취재해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복지부, 근무연수 따라 최대 7만원 산정...10월 시행

오는 10월부터 장기요양기관에 오랜기간 종사한 직원에게 장려금이 지급된다. 근무연수에 따라 월 4~7만원을 더 받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

난달 19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했다.

이번 안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3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담고 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그

간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급대상 및 장기근속기간 산정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지난 6월16일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7월 기탁 현황

“세상에 가장 맛있는 나눔”

- ▲금강축산유통=축산물244kg ▲유진상사=오투기식품4,200개 ▲금강수산유통=수산물80kg ▲김치원=김치20kg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412모 ▲던킨도너츠 제주외도점=도너츠30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6,155개 ▲모양=제과류91봉 ▲미인빵=빵43봉 ▲빠라빠빵=식빵등46봉 ▲신송식품(주)천안공장=장류230kg,식재료3개 ▲신화유통주식회사=식재료44개 ▲아라파파=떡472개 ▲얌얌영농조합법인=빵28봉 ▲영화식품=식재료25개 ▲자연드림 이도점=빵97봉 ▲제주보리촌=보리빵474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쥬스200개 ▲제주도청 존샘봉사회=설탕55kg,식재료5개 ▲갯어클락=식빵9봉 ▲파리마켓 제주대유대림점=빵185봉 ▲행복나눔마트 협동조합=식재료276개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7년 6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600,000	560,000
난치병환아후원	55,000	0
자원봉사후원	695,000	695,000
복지사업후원	905,000	249,770
푸드마켓후원	3,150,000	104,86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주사회복지신문 발행안내 www.jeubokji.net

우) 633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예전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 1동 1112-1)

발행인: 고치환 편집인: 고봉식 편집자문: 김길웅·김범훈·한영조

■ 창간일: 2007년 9월 1일 ■ 등록번호: 제주라 01010

■ 편집위원실: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디자인리더제주

“복지신문과 함께한 사회복지인을 찾습니다”

오는 15일까지, 제주사회복지신문 창간 10주년 이벤트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가 발행하는 제주사회복지신문이 오는 9월 창간 10주년을 맞이한다. 이에 제주사회복지신문 창간과 함께 사회복지현장에 입사한 후, 제주사회복지 발전을 이끌어 온 사회

복지인을 찾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찾는 대상은 2007년 9월 입사 후, 한 기관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자이다. 찾는 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다.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상

품 지급과 함께 사회복지신문 10주년 기념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자 또는 이를 알고 있는 분은 제주사회복지신문 (담당 김동주, 070-4726-8825)로 연락하면 된다.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4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달 25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센터장 심경수), (사)사회복지법제학회(회장 최승원), (사)자치법연구원(이사장 홍정선)과 제주지역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연구사업, 조사연구사업, 사회복지시설·운영서비스 발전을 위한 사업,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사업, 법·제도 개선사업, 홍보활동 등 협약단체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정책

손뜻모아봉사회 창립 14주년 기념행사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손뜻모아봉사회(회장 문영호) 창립 14주년 기념행사가 지난달 23일 제주시 용담동 고도정 식당에서 개최됐다 <사진>.



들의 도움으로 14주년 기념식을 맞게 되었다”라며 “제주사회를 빛내는 자원 봉사단체로 우뚝 성장하도록 회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우수자원봉사자로 강신열 회원(589시간 봉사활동)이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장 상을 수여받았다.

문영호 회장은 “많은 분



국제로타리3662지구 쌀 기부

국제로타리클럽 3662지구(총재 강태범)는 지난 6월 30일 메종글래드 제주컨벤션홀에서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운영하는 제주광역푸드뱅크에 약 600만원 상당의 이웃사랑 물품(쌀 1,920kg)을 전달했다.



제주중 '기부데이' 물품 전달

제주중학교(교장 김영민)는 지난달 6일 제주광역푸드뱅크로 약 120만원 상당의 물품(식품 및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기부데이'에 동참한 학생들의 기부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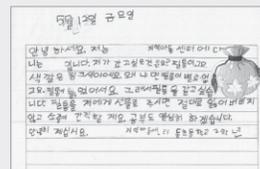


소비자중앙교육회 물품 기탁

사단법인 소비자중앙교육회 제주도지부(회장 강순희)는 지난달 8일 김만덕기념관 1층 강당에서 열린 '설립 45주년 전도 지도자 대회'에서 제주도광역푸드뱅크로 이웃사랑 물품(의류 및 생활용품)을 기탁했다.

기적의 편지 들여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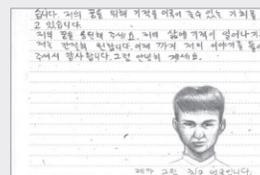
삐뚤삐뚤, 꺾꺾 눌러쓴 손 편지, 예쁜 그림을 함께 그린 편지 등 총 219통,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중 3통의 편지를 독자분들과 함께 나눠본다(편집자 주). (원문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맞춤법·띄어쓰기 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통

OO초 2학년 A양

안녕하세요. 저는 0000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00입니다. 제가 갖고싶은것은요? 필통이고요. 색깔은 핑크색이에요. 왜냐면 필통이 별로 없고요. 필통이 늙어서서요. 그래서 필통을 갖고싶습니다. 필통을 저에게 선물로 주시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소중이 간직할게요.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미술학원 수강권

OO중 1학년 B군

...저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멋진 웹툰 작가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을 늘리기 위해 전문적인 미술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처음에 복지 선생님이 편지를 써보지 않겠냐고 재안을 들었을때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의 꿈을 응원해 주세요. 저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한복

OO여중 2학년 C양

...저의 꿈은 한국, 제주도 전통의 국악이나 민요를 세계곳곳에 알리는 '국악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민요를 배웠고 앞으로도 꾸준히 민요를 배울 예정 입니다. ...점점 국악이라는 것을 배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공연을 하면서 대회를 알아보고, 대회에 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악 쪽으로 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연을 할때마다 한복을 대여 받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 탓에 대여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힘드신 상황이다 보니 한복을 사달라고 말조차 못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적의 편지'를 통해서 한복을 받고 싶습니다. 만약 저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조금더 저의꿈에 한발 짝 다가갈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

대정읍에...지상 4층 규모 총 사업비 51억 원 들여

지역주민 복지 향상의 거점시설 역할을 할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석 건)이 지난달 14일 개관했다 <사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조성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총사업비 51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연면적 2267㎡ 규모로 식당(1층), 세미나실 및 북카페, 자원봉사자실(2층), 장애아동 프로그램실, 육아나눔터, 강당(3층), 체력단련실 및 회의실(4층) 등 현대식 환경을 갖춘 복지공간으로 꾸며졌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대표 김옥진)을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특히,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 어르신 등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예비인증을 마쳤다. 또 지역의견을 반영해 서부지역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공간을 마련, 소외계층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서부종합사회복지

관 개관으로 제주도는 종합사회복지관 10곳(제주시 7, 서귀포시 3)으로 시·도별 인구대비 복지관 설치율 전국 1위를 차지하게 됐다. 원희룡 지사는 “현대적 시설로 새롭게 조성된 환경에서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복지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희망나래, 경제부총리 표창 수상 '제5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서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대표 최영열)는 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제5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에서 경제부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한 전국 우수 협동조합 12곳에 표창을 수여한 이번 기념식에서 희망나래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 사회진출을 도와 온 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5년 창립한 희망나래는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의 문제해결을 위해 조합원들이 뜻을 모아 탄생했다.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한 '정원문화센터'를 운영하며 리사이클과 원예 치료를 연계하고, 장애인의 개별 직업훈련을 돕는 '희망나래활동센터', 판촉·인쇄물 제작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희망나래는 연 매출 1억 5000여만 원 달성했고, 발달장애인 10명의 일자리 창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고 있다.

하모니 여성장애인 8명 바리스타 전원 합격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바리스타 부분 금·은·동 획득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필수)은 지난달 11일 한국바리스타산업진흥원 자격검정위원회 시행 바리스타 자격증(2급) 검정시험에 응시한 여성장애인 8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사진>

주부와 미혼 등 여성장애인들은 2014년부터 복지관 1층에서 운영하는 카페 하모니에서 꾸준히 바리스타 교육훈련 실습을 해왔다. 이들은 일반인들에게 아메리카노 음료를 천원에 판매하는 착한가게 운영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했다.

맛있게 커피를 만든다는 입소문이 자자했지만 정작 자격



증이 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전문가들의 재능기부가 이뤄졌고,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을 거듭한 끝에 시험에 응시한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 이들은 지난 6월 30일에 열린 제주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바리스타 직종에 출전하여 이인선(금), 문영미

(은), 김숙녀(동) 씨 등 3명이 금·은·동메달을 휩쓸었다.

김필수 관장은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커피숍을 운영할 꿈을 갖게 됐고, 자립도 할 수 있게 됐다”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전문가들의 재능기부 협업으로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청소년 제주협회 창립 기념식

한국다문화청소년제주협회(회장 강철남)는 지난 6월 19일, 하와이호텔에서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

기념식은 김태석·이상봉·강성균 도의원, 도내 청소년 기관·단체장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회는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서로의 차이



를 인정하고 협력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

드는데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녕, 마음아, 반가워~' 위탁가정나들이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철남)는 지난 6월 24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2017년 복권기금지원사업 관련 '안녕, 마음아, 반가워~' 위탁가정 나들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사진>

프로그램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천읍 선흘리 소재 ZIP트리스쿨에서 목



공예 체험으로 이뤄졌다. 참여 가족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작품을 만들며 성취감 증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자립지원 주거복지 세미나 개최

“장애인 주거복지의 의존 상태에서 독립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일반주거단지 외 분리보다는 점차 주거공간으로 흡수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이 지난 6월 29일 제주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세미나'에서 나온 제안이다.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장

인 주거복지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란 주제로 이연숙 교수(연세대학교 주거복지사업단)의 기초강연을 하고, 장애인 지원주택사업 실시기관 '엔젤스헤이븐'의 사례발표에 이어 발달장애인 부모,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장,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등 각 영역의 입장을 발표해 현 상황을 공유하고 장애인 주거복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소/식/마/당

‘장애인 이동지원’ 업무협약



(사)서귀포시장장애인부모회(회장 최덕수)와 중앙우등관광(주)(대표이사 양성환)은 지난 6월28일 서귀포시장장애인부모회 강당에서 발달장애인 이동편의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도의 장애인부모단체의 제주관광시 리프트 버스 이용과 수요 발굴에 상호 협력기로 했다.

복지증진 업무협약식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효철)와 (주)아쿠아랜드-제주위터(대표 김종운)는 지난 6월28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으로 (주)아쿠아랜드-제주위터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특별할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제주지역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서로 힘을 모은다.

‘행복한 동행’ 나들이



나눔요양원(원장 김옥순)은 지난 6월15일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샤프론 봉사단(단장 오정심)과 함께 ‘행복한 동행’ 나들이 행사를 다녀왔다.

이번 행사는 샤프론 봉사단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으로 이뤄졌다. 금능해수욕장 산책, 포니벨리 마상쇼 관람 등 나들이 행사를 통해 모처럼 요양원 어르신들이 힐링 시간을 보냈다.

‘빛으로 다듬고 손으로 짓다’



춘강장애인근로센터(원장 이규봉)는 지난 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층 기획전시실에서 춘강 설립 30주년 ‘빛으로 다듬고 손으로 짓다’ 작품전시회를 열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수상 등 여성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해 한복과 양장기술 교육에 힘써 온 섬유사업팀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지역사회에 내보인 첫 전시회다.

자원봉사자 ‘한마음체육대회’



제주케어하우스(원장 홍영진)는 지난 6월24일 영주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한마음체육대회’를 진행했다.

자원봉사자, 종사자 등 140여명이 참여해 화합을 다진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우수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다. 홍영진 원장은 “정기·비정기적으로 도움 주는 모든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바다낚시대회 개최



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고현수)은 광평청년회(회장 현상순)와 공동으로 지난달 23일 조천포구에서 ‘2017년 중증장애인 바다낚시대회’를 개최했다.

중증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25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어선을 이용한 배낚시, 방파제낚시 외에도 옷놀이, 해변 노래자랑, 장기자랑, 경품추첨 등 다양한 행사들로 진행됐다.

방문인권교육 실시



가롤로의집(원장 서영숙)은 지난달 5일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주관 방문인권교육에 선정돼 지적장애인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인권교육에서는 나와 타인의 매력을 찾으며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거주이용인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자신의 감정과 권리를 함께 표현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인간 존중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가 됐다.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서귀포시장장애인보조기구대여센터(센터장 김성완)는 지난 6월 제주도 지원을 받아 ‘2017년 대여용 장애인 보조기구’를 구입했다.

지역장애인단체를 통해 장애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구를 조사하고 감각보조기구 등 총 20종, 30개 보조기구를 구입했다. 이로써 센터는 총 117종 210개 보조기구를 보유하고, 대여를 통해 장애인의 신체적 활동을 지원한다.

자립지원 사례관리 워크숍



제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기관장 김순실)은 지난 6월30일 흥익아동복지센터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2017년도 사례관리 워크숍’을 진행했다.

도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업무 실무자들이 참여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보호체계별 사례공유, 아동전문가의 슈퍼비전, 실무자 정보교류,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등을 가졌다.

사회복지시설 간담회



노형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승윤)는 지난 6월30일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에서 관내 지역아동센터 4곳과 ‘사회복지시설 간담회’를 열었다.

지역복지경제분과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동주민자치위원들이 서로를 소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아동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도움과 연계를 약속했다.

‘한마음 한뜻’ 직원수련회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달 11~14일까지 직원역량강화활동 ‘한 마음 한 뜻’ 직원수련회를 개최했다.

직원수련회는 1박2일 일정으로 두개의 조를 나눠 전 직원이 참여했다. 가파도, 거문오름, 서귀포 치유의숲길 등 다양한 곳에서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유대감 강화와 화합을 도모했다.

보행환경 모니터링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표 고현수)는 지난달 6일과 10일에 보행약자의 보행환경구축을 위한 환경조성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동광초,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변에서 실시된 이번 모니터링에는 활동가 6명이 2명씩 조를 나눠 점자블록, 보행로, 기물기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센터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와 8월 중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론

삶의 만족과 불행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 삶에 만족하거나 불행한 나이는 언제일까. 이에 대한 정답은 없겠지만 이 자체를 추론하고 생각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벨기에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연령별로 직면하는 환경적 특징을 분석하여,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삶에 대한 만족감은 20대 후반부터 점점 하강해서 45세 즈음에 최저점을 찍고 50대부터는 다시 서서히 회복, 전체적으로 U자 곡선을 그린다고 한다. 20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근심걱정이 비교적 적지만,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책임감이 늘어나 만족감이 줄어든다고 한다.

연령별 삶의 만족감

하지만, 삶의 만족감은 무한한 인간적 사고와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해 어느 때가 제일 불행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삶의 만족감을 어디에 두며, 삶의 문제 접근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

진다. 또 그 사회의 환경, 현실, 문화, 전통에 따라서도 달라질터. 우리나라라면 20대 후반까지 과연 근심걱정이 적을까. 취학, 취업의 좁은 문, 심각한 실업, 경제문제. 그들의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제일 불행한 세대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만족감 하락의 정점을 찍는다는 45세는 역설적으로 중후함이 넘쳐나는 중년이다. 직장에서 간부의 자리를 꺾자 명예도 얻고, 경제적 풍요를 느끼며 살만한 인생의 황금기다. 반면에 가정적, 사회적 책임을 통감해야 하고, 직장에서 은퇴를 고민해야 하는 갈등의 시절인 것만은 틀림없는 듯하다.

1960년대에 출생한 50대는 산업화를 이룬 자부심이 있다. 요즘은 실직과 취업난에 파묻혀 버렸지만, 지천명의 세대는 인생을 수용하는 법을 배우고 만족감을 되찾는다. 직장에서 은퇴한 65세 후는 자신그대로 모습에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 다시 말해 45세 삶의 만족감의 최저정점에서 50대가 되면 만족감을 되찾고, 나이가 들어 갈수록 만족감이 더해진다.

장년과 노년세대를 낙관적으로 보는 편견은 없을까. 50대는 경제와 노후문제, 부모부양, 자녀교육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새로운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 늙지도 젊지도 않은 기로에선 어정쩡한 세대이다.

노년행복의 비결

대다수 우리나라 노년은 생계유지와 자식부양에 청춘을 바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희생세대이다. 어찌 삶에 만족을 느낄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중년 때 짊어졌던 책임감이 줄어들고, 즐길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노년행복의 비결이라는 점은 찬찬히 음미해볼직 하다.



문익순 (전) 4·3사업소장

기고

아시나요?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혜택



김미숙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장애인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도모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매월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017.5월 현재 제주도 내 장애인인은 제주도 인구의 5%인 23,788명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는 22%인 5,242명이며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3,614명으로 수급권자의 69%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지원

정책을 몰라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있어 개별방문 및 안내문 발송, 자생단체 회의자료 등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으나 신청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 지면을 통해서나마 알려드리고자 한다.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상자이고 1·2급 장애인이거나 3급 중복지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 합산한 소득인정액기준이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는 119만원 이하, 배우자 있는 2인 가구는 190만4천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65세 이하 중증장애인인 경우 2007년 4월 이전 장애등급심사제도에 의한 등급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재심사를 신청하여 2급 이상 장

애등급을 받아야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어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해주는 급여가 기초급여로 65세 이전까지 206,05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부가급여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20,000원에서 286,05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연중 수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연금은 부양의무자의 조사 없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을 조사한다. 아직까지도 신청하지 않은 중증장애인들은 하루 빨리 신청하여서 더 늦기 전에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칼럼

행복의 조건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행복은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해 UN이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보면,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136개국 중 5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이나 평균수명 등의 객관적 지표가 양호해졌음에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세계경제위기 이후,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행복감이 이와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털린 역설(Easterlin paradox)'이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다. 경제학자 이스털린(R. Easterlin)의 주장은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 도달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의 증가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 이후 행복의 조건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학계의 각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과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빈곤한 국가로 분류되지만 국민행복도는 최상위를 차지하는 부탄(Bhutan)의 사례는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에 충격을 주었고, 최근에는 세계의 각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의 행복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연대의식과 행복

최근에 필자는 제주지역의 사회의 질과 행복의 관계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 조사결과 중 하나를 보면, 제주지역에서는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sion)이 높으면 지역주민들이 행복감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응집성은 사회적 연대의식에 기반하는 것으로서 사회통합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학자 이재열(2015)은 응집력이 유지되는 사회를 '신뢰사회'로, 그렇지 않은 사회를 '불신사회'로 정의한 바 있다. 제주지역에서 사회적 연대의식이 행복에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는,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혼밥', '혼술'이 새로운 트렌드인 현 시대에 '함께 하는 삶'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하는 행복한 장면들은 누군가와 함께 하는 모습으로 각인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주의가 주는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속에서 성장하며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고수희
평안전문요양원 원장

시설탐방 (89)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가족 삶의 든든한 디딤돌 역할

자녀들의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에도 초점

최근 제주사회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가정 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정우, 이하 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제주시청에서 한라산 방향 300m 떨어진 지점 성우빌딩 6층에 위치해 있다.

센터는 2006년 정부에서 발표한 '여성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근거로 2007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설립됐다. 그 이듬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했고, 지난 2010년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센터명을 변경, 제주시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정해 활동하고 있다.

센터는 방문교육지도사 12명을 포함해 27명의 직원들이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소통하는 다문화 사회실현'이라는 미션과, '다문화 가족 삶의 든든한 디딤돌'이라는 비전 아래 다문화가

족의 안정적 조기 정착과 역량 강화, 사회통합에 힘쓰고 있다.

센터는 문화차이에서 오는 가족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가족교육을 비롯해 성평등교육, 인권교육, 사회 통합교육, 상담사업, 홍보 및 정보 제공의 기본업무를 수행한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조기 정착 · 역량 강화 · 사회통합 힘써 제주 문화 이해 '가족 그리고 제주도' 프로그램 최우수상 수상

더불어 지리적·경제적 이유로 센터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위해 방문교육서비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돕는 통번역 서비스, 사례관리사업, 한국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로 지정되어 제주도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힘쓰

고 있다.

지난해 제주의 역사와 인문학을 결합해 다문화 가족이 좀 더 쉽게 제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 그리고 제주도' 프로그램이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2016년 전국센터 우수 사업공모에서 최우

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도내에는 1만9500여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약 70% 정도인 1만 3600여명이 제주시에 살고 있다. 2011년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8,499명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급속히 외국인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운영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 물었다.

김정우 센터장은 "운영비의 어려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센터의 모든 직원이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라며 "여성가족부, 도 관계자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의견을 피력했지만 쉽지 않다."고 답했다.

센터 직원들의 처우를 걱정하는 김정우 센터장은 2008년 부임 당시부터 현재까지 급여를 받지 않고 무급으로 봉사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정우 센터장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10년을 지나는 시점으로 제1세대 결혼이민자들의 자녀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 한국 사회에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가족 및 자녀교육, 상담, 통번역 서비스, 정보제공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점이 많겠지만 여러 이유로 타인 소유의 집에 세를 들어 사는 경우가 많다. 이를 법률 용어로 주택임대차라고 하는데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이다. 임대차 보증금은 금액이 매우 크고 대부분 세입자 가정의 전재산에 해당한다.

◆ 이사할 때 주의사항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여 세입자(기존 임차인)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집을 비워주며 집 주인(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 그런데 임대

인 입장에서든 여유 자금에서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입자(신규 임차인)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서 기존의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는데 간혹 새로 들어올 사람을 구하기 까지 기간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기존 임차인에게 바로 주겠다고 약속을 한다. 기존 임차인은 이 약속을 믿고 먼저 이사를 가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는 것은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없애버리는 위험한 행위다. 임차인의 지위와 재산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라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 미리 확보해 둔 대항력을 바로 상실하게 된다. 이사만 나가지 않았으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자칫하면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면 된다.(법 제3조의3)

◆ 등기 확인 후 이사해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

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우선권을 잃지 않게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약간의 비용(2~3만원)이 들지만 임차인이 직접 작성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는 서류이므로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에 먼저 이사를 나와야 할 상황이라면 꼭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소위 부동산등기부) 상에 등기가 올라가는 지를 확인한 이후 이사를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의식주(衣食住).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만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집 문제이다. 자기 소유의 집에 살면 장

매년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 입니다.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제주지역 곳곳의 사회복지현장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애쓰고 있는 사회복지가족들의 한바탕 어울림의 장!



2017 제주 사회복지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언제·어디서 : 2017. 9. 1(금) 13:00~18:00, 제주 한라체육관
흥미진진한 단체전 경기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인전 경기, 푸짐한 경품 추첨까지...

이웃을 돌보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사회 다짐의 장!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언제·어디서 : 2017. 9. 9(토) 10:00~11:00, 제주대학교 체육관
축하공연, 사회복지유공자 시상, 사회복지사업윤리선언문 낭독, 기념 이벤트까지...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나눔과 기부문화를 체험하고 참여하는 나눔의 장!



2017 제주 나눔 대축제

언제·어디서 : 2017. 9. 9(토) 11:00~17:00, 제주대학교 체육관&잔디광장
재능기부공연, 나눔상자만들기, 500인분 비빔밥 나누기, 나눔도서관, 나눔장터, 각종 체험부스
나눔을 생각하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제주복지넷'(www.jejubokji.net)을 참고해 주세요.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